스물여섯번째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여행

[2020 '준비하라' 시리즈 ⑪ '찾아온 사랑을 찾아']

가장 어색하고 재미없는 여행이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 하는 여행이라지요. 몇 해 전 TV에서 '아버지와 나'라는 제목으로 두 부자가 여행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가 있었는데, 살갗이 오그라들 정도로 어색하고 민망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환갑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했던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토록 어색하고 재미없고 힘들 것 같은 일을 저와 아들이 해냈답니다. 비록 하루 동안이지만 아들과 단둘이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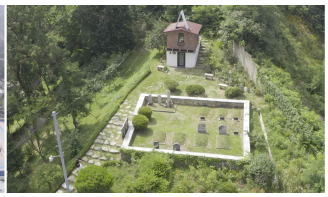
전주 한옥마을

풍남문

저는 BEE에서 '찾아온 사랑을 찾아'(이하 '찾사찾')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아들은 대학에서 촬영을 전공하고 현재는 기업 홍보나 광고 등을 촬영하는 프리랜서 촬영 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미나 등 BEE의 대부분 활동이 온라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찾사찾'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3월부터 영상제작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전주' 편을 제작하기로 하고 현지 모습을 담기 위해 촬영 전문가인 아들에게 부탁했더니 선선히 응하더군요. 일당은 전주비빔밥 한 그릇! 코로나19의 위세가 꺾이지 않는데다 아들과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촬영 날짜가 계속 미뤄지다가 겨우 7월 8일로 정했습니다. 전날 밤샘 촬영하고 들어온 아들의 눈꺼풀을 치켜 올려주면서 촬영 콘티를 짜고 촬영 계획을 의논한 후, 새벽 4시에 출발하기로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들은 본인이 기도를 잘 안하지만 일 나갈 때마다 꼭 기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 태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를 보호해주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특해서 아무리 이른 새벽에 나가더라도 축복 기도는 꼭 해주고 있습니다. BEE에 영상팀이 있음에도 굳이 아들과 촬영 여행을 생각했던 것은, 선교 유적지에 가서 초기 선교사님들의 자취를 쫓아가는 촬영을 통해서 아들의 신앙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부자간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중간 휴게소에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전주 선교사 묘역에 도착한 것이 아침 7시 경이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전주 시내


선교사 묘역

촬영 장비를 익숙하게 조작하고 거침없이 드론을 띄우는 아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전문가적인 포스가 저를 흐뭇하게 했습니다. 선교사 무덤을 촬영하면서 세 아들을 조선 땅에 묻고 자신도 41세의 젊은 나이에 이 땅에 묻힌 전킨 선교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린튼 딸의 무덤 앞에서 4대에 걸쳐서 이 땅에서 선교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린튼 가문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전주 서문교회 역사관 벽면

선교사 묘역과 예수병원 촬영을 마치고 9시 30분 경 전주 서문 교회에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문 교회 역사관은 개방을 안 하고 있었지만 사전 협조 요청에 응해주셔서 담당 실장님께서 손수 안내해주셨습니다.

역사관 벽면에는 선교 초기의 사진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초기 선교 역사를 알 수 있는 보석 같은 자료들입니다. 한참 촬영하던 아들이 한 사진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전킨 선교사 손자 가족이 서문 교회 10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선교사 묘역에서 들려주었던 전킨 선교사의 사연이 기억났었나 봅니다.

전킨 선교사를 기리는 기전학교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병원, 학교

신흥학교는 조선 숙종 때 세워진 유교 서원 희현당 터 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최초 교명은 예수학당이었습니다. 이 땅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화될 것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가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폐교된 사실도 들려주었습니다. 비신앙적 상황에 분연히 대처했던 선배 신앙인의 자세도 이야기했습니다.

3시 30분경 전주한옥마을 촬영을 마지막으로 전주 촬영 일정을 마쳤습니다. 점심 때가 많이 지나서 비빔밥 대신 떡갈비로 즐겁고 든든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올라오는 차 안에서 아들에게 오늘 일정 가운데 신앙적으로 무엇을 느꼈는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찾아온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제가 받았던 특별한 감동을 아들도 특별한 감동으로 느끼길 소망하며, 아들의 눈과 귀에 남아있는 참사랑의 흔적을 통해 아들의 신앙심이 더욱 고양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여행이 아버지와 함께 했던 특별한 여행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촬영된 영상은 '찾아온 사랑을 찾아' 전주 편에서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글쓴이 김천봉 집사]

BEE Korea 사역지원본부를 섬기며 '찾아온 사랑을 찾아'를 기획 및 진행하고, 아들과 함께 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BEE 가족이 선교지를 탐방할 때마다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과 선교 역사에 대해 해설하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안수집사이며, 아들 김동섭 형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대학원) 과정 중이다.

[정리: 김종영 편집: 최선]

곳 그것이 알고싶다

선교지 JAPAN

[일본 음식-카레 라이스]

응? 카레? 라고 생각하겠지만 밥에 카레를 곁들여 먹는 '카레 라이스'는 메이지 시대에 영국을 거쳐 들여와 일본화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현대 일본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재료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먹는 국민요리이다.

BEE 소식

1. 2020년 하나님의 “준비하라”라는 음성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4:12).”
2. 11월 7일(토) 6:30 한동홀에서 BEE 토요기도모임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4개의 기도테이블만 대면으로 모이고, 5개의 기도테이블은 영상으로 함께 합니다. On/Off Line으로 선교지를 향한 기도는 계속됩니다.
3. 10월 31일(토), 10월의 마지막 날! 양재 BEE 토요기도모임 4주년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양재 BEE 토요기도모임을 축복합니다!!